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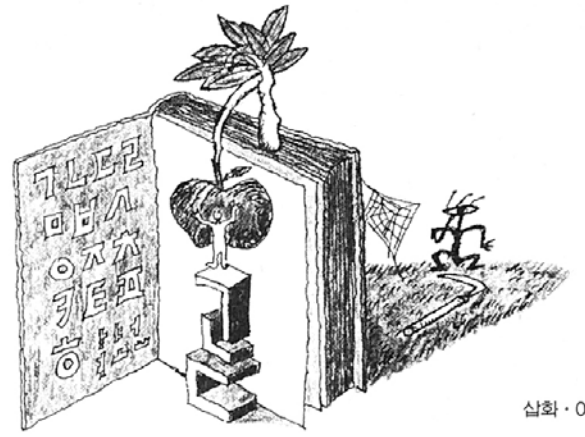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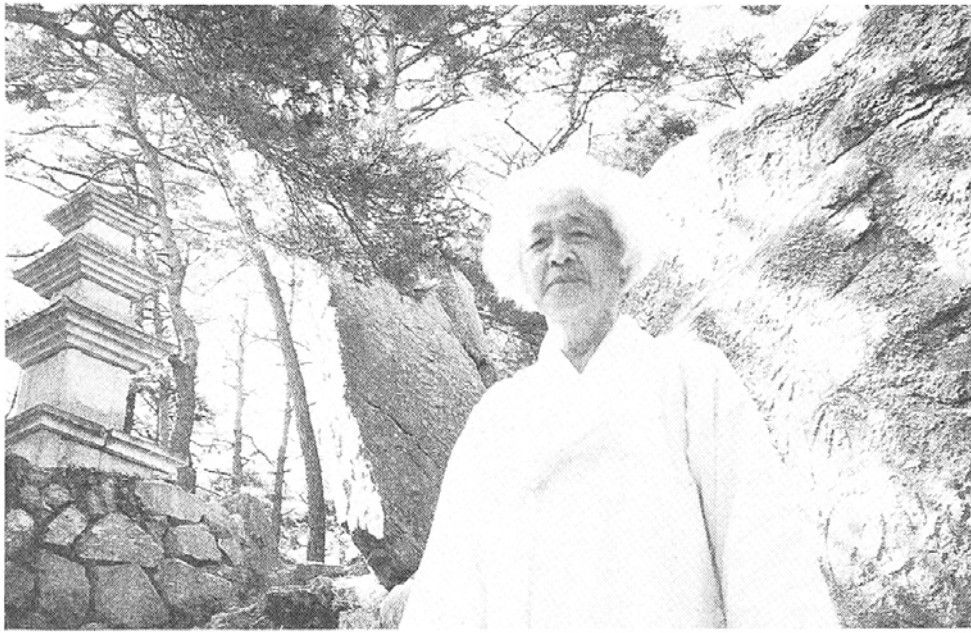
석굴암에 올라갈 때는 김대성이 되고, 협성대를 바라볼 때는 신덕여왕이 되는 사람. 삼화령 아기부처님을 볼 때는 화랑의 눈빛을 담은 사람. 그가 바로 '영원한 신라인'으로 불리는 윤경렬옹(80)이다.

하얀 두루마기에 신선처럼 눈부신 백발의 윤옹은 누구든지 경주 남산에 가고 하면 젊은이 못지않은 힘찬 발걸음으로 흥에 겨워 앞장을 선다.

부처님 세상서 한평생

"신라 사람이 이룬 것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결코 소홀한 것이 없어. 시작도 부처님이었고 마무리도 부처님이었으니. 신라인들은 오늘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부처님의 세계속에서 살았지. 신라인들이 모신 부처님은 먼 곳에 동떨어져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친근한 부처님이야."

신라인들은 바위와 숲 자체를 부처님의 품처럼 여기고 자연을 최대한 살려 조각하였기 때문에 경주 남산이라는 훌륭한 자연예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윤경렬옹의 생각이다. 그에게 경주



삽화·이기선

왜 사는가 알면 행복한 삶

이것이 힘이다. 앎은 삶을 행복하게 한다. 앎은 것이 없다면 세상을 사는데 있어서 막힘이 많다. 요사이 사람들은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경주하고 있다. 지식의 축적이 삶을 바르게 하고 알뜰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만큼 잘 살 수 있다면 알리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면 앎과 삶은 등가성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불교에서도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것이 옳다고 한다. 믿음이 아는 것만 많으면 쇠된 견해가 늘어나고, 알지 않고 믿는 것이 있다면 맹신만 증명된다고 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등가를 유지하게 된다면 보람된 것이다.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안다는 아는 것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47

삶·앎

이다. 행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삶의 길이 무엇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임을 확실하게 깨친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이다. 재산의 다소, 명예의 고저, 신분의 차별을 개념하지 않고 초월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것이다.

있으면 웃고, 없으면 울고, 높으면 우물하고, 낮으면 비겁한 삶이 아니고 일체의 사상(事象)에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이 무상경각적 삶이다.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깨친 마음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삶과 앎은 하나의 등가치를 가지는 교설이다. 삶의 보람은 앎의 누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삶은 Sattva라고 표현되면 앎은 Bodhi로 명명될 수 있다. Sattva가 행복하려면 Bodhi가 극명의 깨달음이 되어야 한다. Bodhi가 암흑한 무명으로 전 환되면 Sattva는 빈천보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Sattva가 빈곤 보통 행복으로 순환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은 Bodhi가 무지 상식 지혜로 대체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Sattva가 삶의 자리를 차지하는 생명이라고 하면 Bodhi는 앎의 세계를 비추는 광명이다. 생명과 광명은 다르게 볼 수 없는 하나이다. 광명이 있으면 생명이 존재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길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면 생명이 행복하게 되고 앎의 빛을 바르게 비추어 나가면 광명이 자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존적 즉물(即物)에 몰입하고 있었다. 즉물견성을 버리면 빛과 삶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삶과 앎을 정각케 하는 교설인 것이다.

'우리의 美' 찾기 50년... "남산은 고향"

산문박의 碑

경주 향토사학자 윤경렬 翁

남산은 영원한 고향이다. 마치 안방처럼 느낀다. 함께 찾았던 남산 탐골 마에 불상 앞에서 노옹은 남산의 한 부분을 지긋이 응시했다. 그 모습은 삼매에 든 선승의 觀과도 같았다. 시공을 넘나드는 의식세계를 통해 역사의 현장으로 몰입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치 불상이 새겨지던 시절의 이야기와 긴 세월 겪어온 풍상에 대해 신경이라도 나누고 있는 듯...

관장이며 고유섭선생을 찾아간다. "일본에는 뭐하러 갔어? 참된 아름다움이란 원래 있던 곳에서 깎아 터서 꽃피고 열매맺는 법이야."

단 두번의 만남후 유명을 달리한 스승을 뒤로 하고 그는 운명처럼 천년고도 경주로 향하게 된다. 그때가 30대의 젊은 시절. 우리 고유의 美는 화두를 가슴에 안은 채...

그때부터 윤옹은 1천년 세월을 뛰어 넘어 '신라스러움' 탐구에 몸과 마음을

신이나 다름없다. "또 한가지 우리의 자랑은 작은 것에 큰 것을 담는 능력이야. 석굴암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 안에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다 표현해 놓고 있지."

신라의 예술은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 인공이 자연속에 친화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되는 그런 예술이다. 우리의 美를 찾기위한 긴 여정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아름다움이야. 우리 부처님은 마음씨 좋은 시골 아낙네, 익살맞은 아저씨의 얼굴 그대로지. 이렇게 정다운 부처님 얼굴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다시 없어."

이러한 그에게 경주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계획이란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로 가능성조차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신라인들은 바위를 쪼아 부처님을

들을 다 좋아하지만 특히 삼화령 아기부처님을 가장 좋아한다. "경주어린이들이야말로 영원히 경주를 지켜가는 파수꾼이 될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는 지난해까지 40여년간 경주 박물관 어린이박물관학교를 운영해 오

"우리의 자랑은 작은 것에 큰 것을 담는 능력이야. 석굴암은 크지는 않지만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다 표현해 놓고 있지"

"고속철 경주통과는 신라의 숨결 끊는 죄업"

습이 아프지만 깨진 돌조각 하나. 회미해져 가는 마애불의 모습 하나하나가 오래전부터의 도반인듯 마음속 얘기를 나누노라면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윤경렬옹이 향토사학에 빠져들게 된 계기는 순전히 '우리의 美'를 찾기 위해서였다. 함북 주을 촌사람이던 그는 광주학생운동을 지켜보고 비로소 '민족'에 눈뜨게 된다. 베토벤, 몰스트리, 토요티미 히메요시쿠에 몰랐던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풍속도우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3년간 머물렀던 그는 꾸밈과 허식이 많은 일본토우로는 우리의 美를 표현할 길이 없어 당시 개성박물관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우속에 숨어있는 부처님을 찾아낸 것"이라고 강조하는 윤옹은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되면 이미 경주 고유의 숨결과 색채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크게 탄식한다. 또 경주는 이미 경주시민만의 것이 아님을 한국인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죽어서도 남산 수호신

윤옹은 20년전 환갑 때도 아들이 차려주는 잔치를 마다하고 그 경비를 남산 성역조사에 썼을 정도로 남산 보존에 공을 들여왔다.

윤옹은 남산에 있는 크고 작은 부처님

며 어린이들의 문화재교육에 힘써왔다. 언제나 경주 얘기만 나오면 누구보다 신이 나는 사람. 50년동안 신라의 수문장으로 서라벌의 맥을 잇고자 노력해 왔듯이 죽어서도 남산의 수호신이 되고자 하는 그에게 벼들이 현사한 시는 이렇다.

곱슬머리 타래진 얼굴 저편에 千年 신라가 누워 앓고 있는데 흰 두루마, 고무신을 슬가지에 걸어놓고 삼화령 높은 봉에 꿈을 깨는 그림자여.

경주=이윤호 기자

강원도 양양 동해사 도량에 내리는 자비광명의 法雨

92년 이후 매년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법비가 내리는 강원도 양양 소재 동해사(주지 서의륜 스님).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는 수천 명이 넘는 불자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몰려든다. 올해도 법비는 예외없이 내리고 불자들은 환희의 탄성을 지르며 「나무아미타불」을 독송하고 있다.

동해사
☎ (0396) 672-2900

“ 강원도 양양 동해사에서는 한국 근본불교실천협의회 주최로 오는 29일 부처님 하강기념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본 행사는 28일 만등불사를 접수하여 점등철야 기도회를 갖게 되며 29일 오후 1시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

부처님 하강기념 대법회 겸 만등불사 접수안내

오는 10월 28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소재 동해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처님 하강기념 대법회 겸 만등불사를 접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동해사
- 일 시 : 1995(불기 2539)년 10월 28일, 29일
① 10월 28일-만등불사 점등 철야기도회 ② 10월 29일-하강기념 대법회 봉행 오후 1시
- 연락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동해사
- 전화문의 : (0396) 672-2900 / 서울 (02) 831-3886-7